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

“자살보도 신중해야...언론이 생명 지킬 수 있다”

김도연 광주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 보도 사례 분석
유명인 기사 일반인에 영향 “고인·유가족 인격 존중”

“언론이 자살예방 보도준칙을 실천하면 실제로 자살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김도연 광주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은 1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본사 아카데미홀에서 열린 한국언론진흥재단 찾아가는 저널리즘 특강에서 “언론이 자살 예방 보도준칙을 실천할 때 자살을 예방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 권고기준 4.0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진행한 이날 강연에서 김 팀장은 베르테르 효과와 파파게노 효과를 소개하며 자살보도의 사회적 영향력을 설명했다.
김 팀장은 “베르테르 효과는 유명인이나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인물의 자살 이후 모방 자살이 증가하는 현상”이라며 “반대로 자살 관련 보도를 신중하게 하고

인물이나 비슷한 연령대의 유명인과 자살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며 “연구 결과 자살을 결심한 뒤 실제 시도까지 걸리는 시간은 평균 30분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살보도 권고기준 준수를 당부했다. 그는 기사 제목에 ‘자살’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구체적인 장소나 도구, 방법은 보도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환경에서는 자살 관련 기사와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언론인과 콘텐츠 생산자의 윤리적 책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살수단 접근 차단 효과도 소개했다. 2010~2011년 농약 ‘그라목손’ 판매 중단 이후 농약 음독 자살은 10만 명당 2011년 5.26명에서 2013년 2.67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팀장은 “자살 사건은 가급적 보도를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보도할 경우에도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며 “고인과 유가족의 인격 및 사생활



17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광남일보 1층 대강당에서 열린 2026년도 찾아가는 저널리즘 4차 교육에 참석한 이송배 광남일보 사장과 임직원들이 김도연 광주자살예방센터 상임팀장의 ‘지역언론을 위한 자살보도준칙’에 대해 교육을 받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수 있는 정보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청소년전화 1388 등 전문 상담기관 연락처를 안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목포상공회의소, 창립 기념 회원사 모범근로자 선정·시상

지역 경제 발전 이바지 격려
‘해외 산업 시찰’ 기회 제공



목포상공회의소는 창립 제128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사 모범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목포상공회의소(회장 정현택)는 창립 제128주년을 맞아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한 회원사 모범근로자들을 격려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경제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하며 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근로 문화를 선도해 온 모범근로자를 발굴·시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회원사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상식에는 목포상의 정현택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수상자, 기업 임직원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기업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근로 문화 조성에 기여한 회원사 소속 모범 근로자 17명을 표창했다.
이들은 회원사에 3년 이상 재직하며 매

출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임직원들로 ‘해외 산업 시찰’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정현택 목포상공회의소 회장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자기개발

과 성실함으로 기업을 지켜온 근로자 여러분의 열정이 동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다”며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지역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탱해 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이어 “목포상의는 128년의 자부심을 넘어, 회원사가 가치로 평가받는 성공 비즈니스의 동반자로서 든든한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훈기 기자 leek2123@gwangnam.co.kr



광주시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장애인체육 발전 후원금 1억원을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사진제공=광주시장애인체육회

광주장애인체육 제3기 위원회, 후원금 1억 전달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기탁...선수 육성·국제대회 지원

광주시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가 지역 장애인체육 발전을 위한 후원금 1억원을 전달하며 3년 연속 역대 후원을 이어갔다.
광주시장애인체육 제3기 발전위원회는 지난 16일 광주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장애인체육 발전 후원금 1억원을 광주시장애인체육회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광주시장애인체육회장)을 비롯해 한상득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정선교 발전위원회 추진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광주시장애인체육 발전위원회는 지역 장애인체육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선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

후원 조직이다.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역 기업과 일반 후원자들을 대상으로 모금 활동을 펼쳐 1억원의 후원금을 조성했다.
발전위원회의 후원은 올해로 3년째 이어지고 있다. 제1기 발전위원회는 지난 2024년 1억8000만원, 제2기 발전위원회는 2025년 1억1200만원을 후원했다. 제3기 발전위원회는 올해 1억원을 조성하면서 3년 연속 1억원 이상의 후원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선교 추진위원장은 “발전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져 장애인선수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송홍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지역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사진제공=광주시설관리공단

광주북구시설관리공-광주비엔날레재단, 협약 체결

지역 문화 활성화·문화예술 기회 확대 협력

광주 북구시설관리공단은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지역 문화 활성화 및 문화예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광주비엔날레재단 점진실에서 진행된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문화예술 자원과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도시 광주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식에는 이옥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과 조정희 문화체육본부장, 양지현 문화운영팀장 등이 참석했으며, 광주비엔날레재단에서는 윤범모 대표이사외 백영진 전시1부장 등이 참석해 상호 협력의 의지를 다졌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양 기관은 협약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 콘텐츠 및 관련 사업 교류·협력 △시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한 공동 협력 및 지원 △문화예술·관광·생활문화 분야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문화자원 활용 및 문화도시 가치 확산 등을 위해 협력한다.
이옥춘 북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문화예술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시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광주비엔날레재단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문화도시 광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17일 남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및 지역건설업체와 합동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광주도시공사, ‘사랑의 집 고치기’ 전개

벽체 붕괴·누수 등 고위험 사회 보호계층 시설 보수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승남)가 열악한 주거 환경에 노출된 사회 보호계층을 위해 지역 사회와 손을 맞잡았다.
광주도시공사는 17일 남구 일원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 광주시회 및 지역건설업체와 합동으로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장에는 공사 인직원과 협력업체 관계자 등 총 30여명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이번 대상은 고관절 수술로 거동이 불편한 80대 독거 어르신 세대다.
해당 주택은 지난해 폭우로 한쪽 벽체가 무너져 토사가 유출되고, 지붕 누수로 인한 도배지 훼손과 외부 화장실 배수 기

능 상실 등 구조적 안전과 위생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광주도시공사는 현장 정비와 폐기물 처리를 지원하고, 지역 건설업체는 재능 기부를 통해 파손된 벽체 미장 및 지붕 교체 등을 전담했다.
김승남 광주도시공사 사장은 “무너진 벽과 새는 지붕 아래서 불안에 떨었을 어르신에게 안전하고 따뜻한 보금자리를 되찾아 드려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굳건히 연대해 사회 보호계층의 주거 안전망을 빈틈없이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동민 기자 yang00@



광주시새마을회는 최근 새마을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 및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새마을회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광주시·구새마을회-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정신건강 인식개선 등 생명존중 협약

광주시새마을회(회장 류재선)가 지역 사회 중심의 자살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본격적인 민간 협력에 나섰다.
광주시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시새마을회 회의실에서 광주광역시(센터장 유승형) 및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새마을회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

이번 협약은 정부의 자살예방 정책 기조에 발맞춰 민간단체와 전문기관이 협력하는 지역 밀착형 자살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 참여 중심의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광주시새마을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 및 구 정신건강복지센터, 구 새마을회와 ‘생명존중 안심마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글·사진=최기남 기자 bluesky@